



'Nostalgia'

현대인들 갈망하는 이상향

한국화가 강일호 개인전 6일까지 자미갤러리

한국화가 강일호 개인전 6일까지 자미갤러리에서 개막된다.

강씨는 이번 전시에서 향토의 자연을 3색으로 표현한 노스텔지어 연작을 통해 현대인들이 젊은 시절 가슴에 담아두었던 이상향의 세계를 그렸다.

노스텔지어 연작은 푸른 초원과 산, 하늘을 3면으로 분할, 3 가지 색으로 계절의 변화를 형상화함으로써 관람객을 포근한 향수의 세계로 이끈다.

'위기의 남자-개꿈', '하루' 등 작품은 현실의 중압감 속에서 도 꿈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고뇌를 형상화했다.

강씨는 이 전시에 이어 일본 교토의 동시에 갤러리에서 9월 18일부터 29일까지 순회전을 가질 예정이다.

강씨는 전남대 예술대학원에서 활동하고 있다.

/운영기자 penfoot@kwangju.co.kr

CNS 금관5중주단 화요예술무대

5일 광주문화회관 소극장

CNS 금관5중주단이 화요예술무대에 선다. 5일 오후7시30분 광주문화회관 소극장.

호른(장현용), 튜바(김세훈), 트럼본(서용일), 트럼펫(송형진·추선호)으로 구성된 CNS 금관5중주단은 이날 공연에서 헨델의 오라토리오 '솔로몬' 중 '시바 여왕의 도착', 푸치니의 오페라 '라 보엠' 2막 중 '뮤제타의 왈츠', 비제의 오페라 '카르멘' 모음곡, 피아졸라의 '방각' 애일랜드 민요 '아 목동이', 영화 '플레톤'의 삽입곡 '아다지도' 등을 연주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시민참여프로그램 행사 지원 인턴십

자원봉사 등 애정...비엔날레 열성 팬

"자원봉사를 통해 문화기획자의 꿈을 키워가고 싶습니다"

제6회 광주비엔날레(9월8일~11월11일) 개막 분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누구보다도 개막을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 비엔날레 기간 동안 시민 참여프로그램인 '열린비엔날레'에서 행사업무를 보조·지원할 인턴과정에 참가하고 있는 '열풍메이커'들이 주인공이다.

김지연(여·25), 이하나(여·23·조선대 미대 3년), 이호석(24·광운대 전자공학부 휴학)씨는 20명의 열풍메이커 가운데 이색 경력과 남다른 열정으로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예비 미술기획자들이다.

지난해 전남대 인류학과를 졸업한 김지연씨는 자원봉사라면 가리지 않고 참가하는 데 몰리는 열정의 소유자. 그는 5·18기념재단이 1년 동안 운영한 스리랑카·홍콩 해외봉사 인턴십에 참가. 지난 6월 일정을 마치자마자 열풍메이커를 자원했다.

김씨는 비엔날레 업무를 맡기 위해 현재 1일 4시간씩 사전 교육을 받고 있는 과정에서도 야간에 광주국제교류센터에서 외국어 번역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그는 "광주를 세계에 알릴 비엔날레에서 행사활동도 하면서 문화를 배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생각해서 지원했다"며 "봉사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컨벤션 기획자의 길을 가고 싶다"고 말했다.

이하나씨는 광주비엔날레 마니아로 통했다. 지난 7월 비엔날레 도슨트 공모에 지원했다가 낙방한 뒤 재수(?) 끝에 열풍메이커 공채에 합격해 비엔날레와 인연을 맺었다.

그는 2004년 광주비엔날레를 보기 위해 전기간 입장권을 구입, 하루에도 2~3차례씩 전시장을 찾았던 열혈 팬이다.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하고 있는 그는 전공을 살려 의재미술관과 광주 MBC 수목대전 도슨트 등 주로 도슨트로서 봉사활동에 참가해온 베테랑이기도 하다.

무보수로 비엔날레 사무국 일손을 거들겠다고 자청한 이씨는 아마추어지만 아무런 일처리로 비엔날레 직원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고 있다.

이씨는 "관람객들이 전시는 물론 다양한 체험을 통해 비엔날레를 즐길 수 있도록 안내자 역할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열풍메이커 가운데 '청일점'인 이호석씨는 1회 대회부터 5회까지 비엔날레 행사를 관람하면서 비엔날레 참여의 꿈을 키워온 비엔날레의 숨은 팬이다.

대학교 방송반 동아리에서 영상보

도부 기자와 라디오 방송 PD로 활동

한 이씨는 함께 동료들이 일하는 모습과 비엔날레 행사의 전 과정을 캡코더에 담는 게 소망이다.

이씨는 "관객에서 벗어나 행사를 주도하는 참가자가 되고 싶은 작은 꿈을 이루었다"며 "관람객들이 참여하는 알찬 시민참여 프로그램이 되도록 열심히 돋겠다"고 다짐했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비엔날레 인턴 과정인 '열풍메이커'에 참여하고 있는 3명의 예비 미술기획자들. 왼쪽부터 김지연, 이하나, 이호석씨.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공연 갖는 日 뉴에이지 피아니스트 유키 구라모토

"데뷔 20년 기념 무대...한국적 서정 담아낼 터"

뉴에이지 피아니스트 유기 구라모토가 앨범 데뷔 20주년을 맞아 광주공연(5일 오후8시 광주문화회관 대극장) 무대에 선다. 공연종비에 한창인 유기 구라모토와 e-메일 인터뷰했다.

-20주년 기념이라는 뜻깊은 공연의 첫 무대가 광주 지역인데.

▲유서깊은 도시 광주에서 연주를 하게 되 참 기쁘다. 앨범 데뷔는 20주년이지만 음악계에 들어온 것은 35년이 됐다. 오랜 기간이 지났다기보다는 '이제부터'라는 생각이 든다.

-한국팬들에게 사랑받는 이유는.

▲내가 추구하는 서정적인 음악과 한국팬들이 잘 어울려서 그런 것 같다.

한국인들은 음악에 대한 감수성이 다른 나라보다 풍부하기 때문에 내 음악이 더 사랑받는 것 같다.

▲소프라노 조수미씨를 위한 헌정곡을 만들고 연주했는데.

▲이번에 국제 무대 데뷔 20주년을 맞는 조수미씨를 위해 새로운 곡을 작곡해 줄 수 있어 뜻깊었다. 특히 연주곡이 아닌 노래라는 점에서 한국어 가사를 사용해서인지 내 자신도 한국과 더욱 친숙함을 느끼게 된 계기

가 됐다.(이 노래는 '주몽' 삽입곡으로 사용된다.)

-음악물리학을 전공했는데 가지 않은 길에 대한 미련은 없다.

▲미련 없다. 사실 대학 들어가기 전에 음악, 음악 물리 둘 다 좋아해서 고민을 많이 했지만 물리학을 선택했다. 다만 대학에 들어가서는 일이 들 어오기 시작하는데 음악 일들이었다.

그래서 그쪽을 잘하고 노력하다 보니 이 길로 접어들게 됐다.

-대중상 시상식에서 연주도 했는데 한국에서 작업할 계획은 없나.

▲사실,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함께 작업하시는 제작인은 조금씩 들어오고 있다. 인연이 달지 않아 하지는 못했지만 한국에서 작업하면 좋을 것 같다.

▲이번 공연에 대해 소개해 달라.

피아노 솔로, 플루트 첼로와 함께 하는 트리오, 협약과트와 함께 하는 연주 등 3가지 연주 스타일로 꾸몄다.

-20년 후의 계획은 어떤 건가.

▲20년 후? 일단은 건강해야겠다. 후진을 키우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 쪽 일도 아주 중요하니까.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오지호 초가

'광주에 가면 /크고 작은 세상일 굽어 보며/ 든든하게 버티고 앉아 있는 사람/'

오지호 화백이 있어/늘 넉넉하고 심상하게 가슴이 편다/비록 단구(短軸)이긴 하지만/

그 속엔 감초들과 같은 자유/하늘을 찌르는 창끝 같은 영혼의 키/샘솟듯 넘치는 그의 얼정을 보라/(중략)

광주에 가서/서울 닮지 않은 광주를 만나고 싶은 자/무등을 등에 업은/지산동 골짜기 초가집을 찾거라'

지난 80년 광주출신인 시인 이성부씨는 '광주에 가서'라는 시에서 고 오지호 화백(1905~1982)을 이렇게 노래했다. 평소 오 화백과 친분이 두터웠던 시인은 한국적인 멋을 오롯이 지니고 있는 지산동 초가를 빛내며 '작은 거인'이었던 화인(畫人)의 풍모를 예찬했다.

광주 지산동 옛 딸기밭 아래에 자리하고 있는 초가는 한국적 인상주의의 회화를 개척한 오 화백이 조선대 교수로 재직하던 1954년부터 1982년 타계할 때까지 근 30여 년 동안 고력을 함께했던 곳이다. 무등산의 너른 품속에서 그는 자연주의적 삶과 예술을 화폭에 녹여내 한국화단에 큰 족적을 남겼다.

그뿐인가. 오지호 초가는 한국 근대건축의 원형을 간직하고 있는 문화재이기도 하다. 120년 전에 지어진 초가는 정면 4칸, 측면 1칸의 전 후퇴(前後退) 양식의 안채와 우진각 지붕이 그대로 남아 있어, 지난 80년 광주시 기념물 제6호로 지정됐다.

그런 오지호 초가가 '애물단지'(?) 신세가 된 듯하다. 최근 인근 일부 주민들이(초가가) 기념물로 지정된 이후 20여년동안 크고 작은 재산권 침해를 받았다면 광주시에 기념물 지정해제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사실 오지호 초가를 둘러싼 논란은 비단 이제 오늘이 일이 아니다. 고인의 탄신 100주년이었던 지난해에도 변변한 기념행사는 고사하고 일부 주민들이 문화재 지정해제를 촉구하는 연명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오죽했으면 읊조 세상을 떠난 둘째 아들 승윤씨가 생전에 "저 세상에 가서 아버지를 볼 면목이 없더라도 주민들의 원성을 사면서까지 구차하게 기념물로 남아있고 싶지 않다"며 기념물 해제를 건의하는 폭탄선언을 했겠는가.

다행히 최근 광주시가 "문화재적 가치가 여전히 있는 만큼 해제할 수 없다"는 방침을 내려 '오지호 초가 논란'은 일단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지만, 뒷맛이 영 씁쓸하다. '예향입네'·'문화중심도시입네' 하면서 징작 아끼고 보존해야 할 문화명소들을 눈엣가시처럼 여기는 행태를 보고 하늘에 있는 오지호 화백과 그의 아들이 무슨 생각을 할지, 참...

/문화생활부장 jhpark@kwangju.co.kr

광장동화공연중개사

Tel 061-7265-2225~7

Fax 061-726-2004

공장, 공장부지

풀류창고, 임야

다양한 부지 다양보유

토지 투자 상담 전문

광장동화공연

652-7544

수표

652-7544

전화 652-7544

1700-211-211-2

SONY

도록

거상부동산컨설팅

Tel 061-726-2225~7

Fax 061-726-2004

부동산 교환

광주·전남 물건 교환보유

부동산 대체부동산 교환

수 농

간 대

판 험

기 봄

나 대

판 험

기 봄

기 봄

중고자동차 전자종 매입·판매

전화 010-8427-9997 (주)총길동 자동차 매매상사

인터넷 주소 http://www.zonggil.com

이메일 주소 zonggil@korea.com

전화 010-8427-9997

인터넷 주소 http://www.zonggil.com

이메일 주소 zonggil@korea.com

전화 010-8427-9997

인터넷 주소 http://www.zonggil.com

이메일 주소 zonggil@korea.com

전화 010-8427-9997

인터넷 주소 http://www.zonggil.com

이메일 주소 zonggil@korea.com

전화 010-8427-9997